

2

백제 왕족과 야마토 황족사이의 근친관계 (近親關係) :

마음속에 와 닿는 기록들

하타다(1979)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그들(倭)은 백제와 공모하여 신라를 침공하고 고구려와 싸웠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들은 백제와 연합하여 끊임없이 신라를 침공했으며, 두 나라에서 인질들을 잡아 왔다. 이 왜(倭)는 누구였고, 어떠한 존재였는가?”¹ 하타다는 또, 백제와 왜의 관계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들이, 거의가 서기 397년에서 428년 사이에

¹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記)를 보면, 서기 500년 이전에 왜(倭)가 49회 나타나며, 이 기록들 가운데서 36회는 주로 해안지역에 대한 침입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반면에 히라노(平野邦雄, 1977)가 지적하고 있듯이 “삼국사기의 백제본기(百濟本記)는, 서기 403년 왜의 사신이 백제에 도착했을 때, ‘아신왕(阿莘王)은 그를 최고의 예우로 접견 했으며’, 전지왕도 서기 409년에 왜의 사신을 정중히 맞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기 397년에서 427년까지, 두 나라 사이에는 일곱 차례의 사절단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집중되어 있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절에서, 먼저 서기 385-428년 기간중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군사적인 분쟁과 백제와 야마토왜(大和倭) 사이의 우호적인 교류에 관한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36-39)의 기록을 살펴본 다음, 백제 통치자들과 야마토 황족 사이의 근친관계를 시사하는 일본서기의 그 마음에 와 닿는 기록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진사왕(辰斯王, 재위 385-392년)은 근구수왕(近仇首王)의 둘째 아들이자 침류왕(枕流王, 재위 384-385년)의 동생이고, 따라서 침류왕의 왕세자였던 아신왕(阿莘王, 혹은 아화왕, 재위 392-405년)의 숙부였다. 서기 386년의 고구려 침공에 대응하여, 진사왕은 서기 389년 군대를 보내어 고구려를 공격했고, 서기 390년에는 달솔(達率) 진가모(眞嘉謨)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침공케 했다. 진가모는 도곤성(都坤城)을 점령하고, 적병 200명을 사로 잡았다. 진사왕은 진가모를 군사담당 좌평(佐平)으로 승진시켰다. 서기 392년에는 고구려의 광개토왕(廣開土王)이 백제를 침공하여 한강 이북의 많은 성을 점령했으며, 진사왕 자신도 임시 별궁에서 살해된다. 아신왕(阿莘王)은 외숙인 진무(眞武)를 군사령관에 임명하여, 군사 문제를 모두 일임했다. 서기 393, 394, 395년에 왕은 진무에게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명령 했지만, 그의 군대는 번번히 패하고 돌아왔다. 아신왕은 왜(倭)와 우호 관계를 맺고, 서기 397년에 왕세자 전지를 질(質)로서 일본에 보냈다. 아신왕은 진무를 군사 담당 좌평으로 승진시키고, 서기 398년과 399년에 고구려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계획한다. 서기 402년 아신왕은 사신을 왜에 보내 큰 구슬을 얻었다. 서기 403년 왕은 왜의 사절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서기 405년 아신왕이 죽자 전지가 일본에서 백제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다. 전지왕은 왜에 사신을 보내 야광주를 전했고, 그 사신은 왜왕으로부터 웅숭한 환영을 받는다. 서기 418년에도 전지왕은 왜에 사절을 파견하여 명주 열필을 전했다. 전지왕의 손자 비유왕(毘有王, 재위 427-455년) 치세 때에는 50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사절단이 왜로 부터 도착했다.^{<1>}

삼국사기의 표준으로 본다면,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분쟁과 백제와 왜(倭)와의 교류에 관한 위와 같은 기록은, 오히려 예외적일 정도로 눈에 띄게 빈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개토왕의 비문에 적혀 있는, 백제와 고구려의 분쟁에 왜군의 빈번한 개입과 관련하여, 진(眞)씨 집안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 호무다(嚮田別)가 진씨 집안의 일원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앞서 제시되었던 것이다.

호무다가 백제 왕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를 도와 일본을 정복케한 추종자들이 모두 백제인들 이었기 때문에, 백제는 야마토 왜(大和倭)의 수립을 환영한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일본서기(NI: 251)에 의하면,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년)은, 손자인 침류(枕流, 재위 384-385년) 왕자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왕래하고 있는 바다 동쪽의 귀국(貴國, 大和倭)은,
하늘이 우리에게 열어 준 것이다. . . .
이것으로 우리 국가의 기초가 영원히 확고해졌다.
너는 우호를 잘 가꾸고(善脩和好)
우리 국내의 토산물(특히 철산(鐵山)에서 나는 철)을 수집하여,
끊임없이 잘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² ②

실로 일본서기는 백제의 통치자들과 야마토 황족사이의 친밀한

²일본서기(NI: 251)는, 구지(久氏)와 그밖의 사람들이 호무다(嚮田別)에게, 백제는 자기나라의 어떤 강[하구에서] “7일간 거슬러 올라 가야하는 거리에” 있는, 그 강의 수원지 곡나(谷那)지방의 철산(鐵山)에서 철을 발견했으며, 백제는 “이 산의 철을” 야마토(大和)조정에 “영구히” 공급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② 왕(1980)은 “8세기 까지 야마토 에서는 대규모 철광석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5세기부터 졸곧 한국의 나라들이 철의 주요 공급국 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먼로(1911: 577)도, “우리는 철편이 백제로 부터 공물로서 바쳐졌다는 기록을 볼수 있다. . . . 철은 대체로 덩어리의 형태로 들어와, 일본에서 무기와 도구로 만들어 졌다고 우리는 추측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친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많은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는 또 신라 및 고구려와의 관계도 기록하고 있으나,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은 눈에 띄게 친근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호무다와 야마토 황족이, 분명히 백제 왕족 내부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일본서기의 기록들을 소개 하기로 한다.³

백제 아신왕(阿莘王)의 태자는, 서기 397년 이후 일본에서 호무다와 한참 동안 같이 살았다. 이 사실은 전지왕자의 일본 파견에 관한 통감(通鑑)의 서술을 인용한, 애스턴의 일본서기(NI: 263n) 각주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어 일본서기(NI: 263)의 본문도 오오진(應神) 16년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 해에 백제의 아화왕(阿花王, 阿莘王)이 타계했다. 그래서 천황은 직지(直支, 전지) 왕자를 불러서 말했다: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왕위를 계승하라.’ 이어 천황은 다시 그에게 한국 동부의 영토를 하사했다. . . .”^{<3>} 이것은 흥미있는 기록이다. 첫째, 우리는 백제의 아신왕이 서기 392년에서 405년까지 통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비록 시대 착오적인 일본서기 방식에 의하면 오오진조(應神朝)의 첫 해가 서기 270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서기 390년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풀이 할 수 있다: 즉, 왜(倭)의 임금이 된 오오진은 공식적으로 백제 영토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한 것이다.

일본서기는 오오진 39년(NI: 270)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제왕(전지왕)은 누이동생을 보내 [오오진을] 섬기게 했다. 신제도(新齊都) 공주는 7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건너 왔다.”^{<4>}

오오진 9년에 일본서기(NI: 257-258)는, 다케노우치(武內)가 새로 세워진 야마토 국가에 대해 불충스러운 흥계를 가지고 있다며

³히라노(1977)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의 기원을 오오진조(應神朝)로 돌리고 있는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의 전반적인 경향”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고해바치는 말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 . 쓰쿠시(筑紫)에 머무는 동안 [그곳의 백성들을 감찰하라고 호무다(響田別)가 파견했다] 그는 은밀히 그 목적 (불충스러운 음모)을 위해 일을 꾸미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이 쓰쿠시를 분리 독립시켜, 삼한(三韓; 백제, 신라, 가야)으로 하여금 나를 받들게 하면, 마침내는 내가 천하를 다 차지하게 되겠지.’”⁴⁶⁾ 이 이야기는 슬쩍 지나가는 말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만, 새로 생긴 오오진-야마토 국가의 취약한 성격, 쓰쿠시의 역할, 그리고 4세기말 일본에서의 한국 세력의 중요성을 들어내 보인다.

넌토쿠(仁德)치세 기간에, 일본서기(NI: 293-294)는 “백제왕의 손자 주군(酒君)”이 왜에 보내졌는데, 그는 이시가와에 살고 있는 니시고리노 오비토(錦織首) 고로시의 집에 머물면서, 사냥을 할 때 넌토쿠를 수행하고, 그를 위해 매를 길들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쓰치구라가. . . 이상한 새를 한마리 잡아 천황에게 바쳤다. . . 천황은 주군을 불러, 새를 가리키며 물었다 — ‘이것이 무슨 새냐?’ 주군이 대답했다: ‘이런 종류의 새는 백제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새는 길 들일 수가 있습니다. . .’ 그래서 새를 주군에게 주어 키우면서 길을 들이게 했다. . . 이윽고 주군은 매의 발에 부드러운 가죽끈을 매고, 꼬리에 조그만 방울을 달았다. 그런 다음 매를 자기 팔에 얹어 천황에게 바쳤다. 그날 [그들은] 모즈의 황야로 사냥을 나갔다.”⁴⁶⁾

일본서기(NI: 338-339)는 백제신찬(百濟新撰)을 이렇게 인용하고

“애스턴(NI: xvii-xviii)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5세기 같이 늦은 시기가 되어도, 몇몇 경우에는 연대기가 120년이나 차이가 나도록 틀리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 줄수 있다. . . 다른 나라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일본서기의 첫번째 날짜는 서기 461년지만, 그 이후에도 얼마동안은 연대기가 약간 모호하다. 일본서기에 실린 날짜의 정확성이 믿을만한 것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서기 500년으로 잡는다면, 아마 그리 동떨어지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군(酒君)이 넌토쿠(仁德)의 매를 길들였다고 하는 이 일이, 정확히 어느해였는지 짐작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있다: “. . . 개로왕(蓋鹵王)이 [서기 45년에] 즉위했다. 천황(유우라쿠)은 아래토쿠를 보내어 여랑(女郎)을 한 사람 보내 달라고 청했다. 왕은 모니(慕尼)부인의 딸 적계를 치장시켜 천황에게 보냈다. . . [그러나] 백제에서 온 이케쓰 히메(적계 여랑)는, 천황이 귀여워해 주려고 [다시 말해서 결혼하려고] 했었는데도, 이시카와와 정사를 가졌다. . . . 천황은 대로하여. . . 여랑을 볼 태워 죽였다.”⁷

일본서기(NI: 345-346)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백제의 가수리군(加須利君, 즉 개로왕)은 동생 군군(軍君, 고니키시, 즉 昆支君)에게, ‘너는 일본에 가서 천황을 모셔라’하고 말했다. 군군은 대답하여 말했다: ‘. . . 저에게 형님의 축실을 한사람 주십시오, 그러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수리군(개로왕)은 임신한 축실 한 사람을 군군의 아내로 주면서 말했다 — ‘. . . 만일 이 사람이 여행 중에 해산을 하거든, [아이를] 배에 태워서. . . 즉각 이 나라로 돌려 보내라. . .’ . . . 임신한 그 축실은 쓰쿠시(筑紫)의 가하라 섬(各羅嶋)에서 아기를 낳았다. . . 그래서 군군은 즉각 배를 구하여 시마군(嶋君, 시마키시, 즉 개로왕의 아들)을 그의 나라로 보냈다 [서기 461년]. 그가 무녕왕(武寧王)이 되었다. 백제 사람들은 그 섬을 주도(主嶋, 주인의 섬)라고 부른다.”^{5 (8)}

일본서기(NI: 346)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백제신찬(百濟新撰)은 말한다:

— 신축년(辛丑年, 서기 461년)에 개로왕은
동생 곤지군(昆支君, 혹은 고니키시)을 대왜(大倭)에 보내어,
천왕(天王, 즉 유우라쿠)을 모시고,

⁵히라노 (1977)는 지적한다: “이것은 최근 공주 송산리에서 발굴된 무녕왕 묘지(墓誌)와 완전히 일치한다. 거기에는 왕의 시호가 사마(斯麻, 시마군)였으며, 서기 523년에 나이 62세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그가 서기 461년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서기에 시마키시(嶋君)가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해인 것이다.” 이진희(1982)는, “키시”가 군(君) 또는 왕이라는 뜻의 고대 백제어였다고 밝히고 있다.

형왕의 우의를 다지도록 했다(以脩兄王之好也).”⁸⁾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하: 60)에 의하면 문주왕(개로왕의 아들)이 “동생” 곧지를 좌평(佐平)으로 임명한 것은, 서기 477년 4월이었다. 다시 말해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곧지군은 개로왕의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것이다. 삼국사기는, 곧지군이 서기 477년 6월에 죽었으며, 그의 아들이 동성왕(東城王, 재위 479-501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NI: 353-354)에 의하면, 유우라쿠(雄略)는 [서기 465년에] 이렇게 말한다: “신라는 서쪽 땅을 차지하고 있다. 대대로 [스사노오, 미마키, 히미코 등의 시대를 통해서 라는 뜻] 신하의 예를 지켜왔다(累葉稱臣). . . . 그러나 우리[백제 왕족의 오오진 계통이라는 뜻]의 천하가 된 이후로 부터는(朕之王天下), 신라는 쓰시마(對馬島) 밖으로 물러나, 잡라 밖에 행적을 숨기고 있다 [신라는 이제 큐우슈우나 이즈모에 자주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뜻]. 신라는 고구려가 우리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을 방해하고, 백제의 성들을 삼키고 있다. . . 야생의 늑대같은 마음으로, 신라는 배가 부르면 달아나고, 굶주리면 재빨리 덤빈다.”⁹⁾ 일본서기 (NI: 354-355)는 또 백제와 야마토가 신라를 상대로 싸운 공동의 노력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별로 성공을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서기 475년,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을 점령했으며, 백제는 부득이 수도를 웅진(熊津, 公州)으로 옮긴다. 일본서기(NI: 366-367)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왕이 대군을 움직여 백제를 강타했다. 살아 남은 자가 조금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창하(倉下)에 집결했다. 군량은 떨어지고, 깊은 슬픔과 근심이 그들을 휘덮었다. 이 때 고구려의 장군들은 왕에게 말했다: - ‘백제의 기질에는 무언가 비상한 데가 있습니다. 그들을 관찰해 보면, 언제나 마치 자신들의 파멸을 모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되살아날까 두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제거해 버리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은 말했다: - ‘안된다! 나는. . . 백제국이 일본국의 관가(官家)이며, 그 관계는 아주 오래 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백제 왕들이 일본에 찾아가 천황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인접 국가들이 다 아는 일이다.’ 결국 그것(백제인을 멸절 시키자는 제안)은 폐기되었다.” 일본서기 (NI: 367)는 계속한다: “천황은 백제가 고구려에 격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문주왕(汶洲王, 재위 475-477년)에게 구마나리(久麻那利, 熊津)를 주었으며, 그렇게 하여 백제의 부흥을 도와 준 것이다.”^{<10>}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오진(應神) 계통 황족의 근원이 백제 왕족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본서기 (NI: 369)는 또 백제 문주왕의 뒤를 이은 삼근왕(三斤王, 재위 477-479년)이 죽자, “유우라쿠(雄略)는 곤지군(昆支君)의 다섯 아들 가운데 둘째인 마타(末多) 왕자를 궁전으로 불렀는데, 그는 젊고 총명 했으며, 유우라쿠는 왕자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백제를 다스리도록 칙명을 내렸으니, 그가 바로 동성왕(東城王, 재위 479-501년)이 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11>} 이러한 기록들은 백제와 야마토 통치자들 사이의 가까운 친족관계 감정을 투영하는 것이다.

일본서기 (NI: 406)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기 505년 백제왕은 사아군(斯我君, 시가키시)을 보내면서. . . 별도의 서한에서 말했다: ‘종전에 공물을 전달한 마나(麻那)는 백제 국주의 골족이 아니었소(國主之骨族). 그래서 삼가 사아(斯我)를 보내어 조정에서 봉사토록 하는거요.’. . . 나중에 그는 법사군(法師君, 호오시키시)이라는 아들 하나를 둔다. 그가 야마토노 기미(倭君)의 시조이다.”^{<12>}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이 서기 554년에 신라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의 아들 여창(餘昌, 成德王, 재위 554-598년)은 셋길을 찾아, 간신히 싸움터로 부터 빠져 나왔다. 일본서기 (NII: 75)는, 이 시점에서 신라의 장군들이 백제가 아주 탈진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싶어

했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말한 장수가 있었다: ‘불가 합니다. 일본 천황은 임나(任那) 때문에도 빈번히 우리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백제 미야케(宮家)를 섬멸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후환을 자초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4>}

일본서기 (NII: 75-78)는 또 기록한다: “여창(餘昌)은 왕자 혜(惠, 威德王의 동생, 후일 惠王, 재위 598-599년)를 천황(欽明)에게 보내어 ‘성명왕(聖明王)이 적에게 살해 되었다’는 말을 전하게 했다. 천황은 그 말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사신(蘇我卿)을 항구로 보내 혜왕자를 맞이해 위문케 했다. 소가노 오미가 위로하며 말했다: ‘. . . 아아 이 얼마나 통한 스러운 일이오. . .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자 누가 있으리오? . . .’”^{<14>}

일본서기 긴메이(欽明) 조에는 유우랴쿠(雄略)에 관한 소가의 얘기가 들어 있는데, 그가 백제 왕자 혜에게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NII: 76-77): “전날 오오하쓰세(大泊瀬, 유우랴쿠) 치세때, 당신나라 [백제]는 고구려의 필박을 받아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오. . . 그래서 천황 [유우랴쿠]은 신토의 신관(神祇伯)에게 신들의 뜻을 물어 보게 하셨소. 이윽고 신의 말을 전해들은 신관(祝者)이 대답하여 말했소: ‘우리나라를 세운 신에게 공손히 기도를 드린 다음, 파멸의 위협을 받고 있는 통치자를 도우러 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나라는 조용해질 것이고, 그 백성들은 평안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기도가 드러지고, 원조가 제공되었으며, 그 결과 당신 나라[백제]의 사직이 안녕하게 되었소.”^{<15>}

소가(蘇我)는 계속 말한다 (NII: 77): “본시 이 나라를 창건하신 신은(原夫建邦神者), 하늘[백제?]과 땅[야마토왜?]이 갈라졌을 때, 그리고 초목이 말을 했을 때, 하늘[백제?]에서 내려와 (自天降來) 이 나라를 세우신 신이시오(造立國家). 최근에 나는 그대의 나라 [백제?]가 그 신[호무다?]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말을 (不祀) 들었소. 그러나 지금이라도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신을 위해 신궁을 수리하고 (修理神宮), 그 신령을 받들어 제사드린다면

(奉祭神靈), 그대의 나라는 번창할 것이오.”^{<15>} 이 대목에서 애스턴(NII: 77)은 지적한다: “쓰쇼의 평자는 여기서 세이토기라는 책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이상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간무(桓武, 재위 781-806년) 치세때에 우리와 한국[백제?]은 똑같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다. 천황은 이것을 싫어하여 그 기록을 태워버리고 말했다: -이것들은 그 나라[백제?]를 창건한 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조상인 신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서기 556년, 백제 왕자 혜(惠)는 고국으로 돌아갔다. 일본서기(NII: 78)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베노 오미(阿倍臣), 사헤키노 무라지(佐伯連), 하리마노 아타헤(播磨直) 등이 쓰쿠시(筑紫) 땅의 해군을 인솔하고, 왕자 혜를 백제로 호위해 가도록 파견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쓰쿠시의 히군(火君)은 용감한 병사 천 명을 이끌고 그를 미탄 항구까지 호위해 갔으며, 또 항구에 이르는 요해지(要害地)를 경비토록 했다.”^{<16>}

서기 562년, 신라가 임나(任那)를 격파했다. 이때문에 긴메이(欽明)는 칙령을 발표했다(NII: 86): “. . . 그들[신라]은 우리의 미야케(宮家)를 파괴하고, . . . 우리 군현의 주민들을 학살했다. . . 그 누가 이 일을 듣고 가슴이 터지는 슬픔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물며 태자와 오오미(大臣)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 . 모두 힘을 합쳐 간사한 역도들을 주살하여, 하늘과 땅을 거역한 이 통분을 씻도록 하라. . .”^{<17>} 일본서기(NII: 86)는 또, 백제는 긴메이가 사데히코에게 인솔시켜 보낸 왜군의 도움으로, 서기 562년 고구려 왕을 격퇴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18>}

일본서기(NII: 97-99)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현재 백제에 살고 있는, 히(火)의 아시키타 지방의 미야코(造) 아리사등(阿利斯登)의 아들, 달솔 일라(達率日羅, 서기 583년 일본에 소환되었다)는. . . 천황(敏達)에게 (상고하여) 말했다: — ‘백제인들은, 쓰쿠시(筑紫, 九州)에 300척의 배(이민선?)가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런 요청을 해 오거든, 들어 주시는 척 하십시오. 백제는 아마도 새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고 있으며 (欲新造國), 틀림없이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배에 실어 보낼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정부는 이키(壹岐)와 쓰시마(對馬)에 많은 병력을 매복시켜 놓았다가, 그들이 도착하면 모두 살해해 버려야 합니다.”^{<19>} 애스턴 (NII: 99n)은 이 기록에 대해서 한 마디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모두 여간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기록은 국내 해설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일본서기 (NII: 90)는, 서기 572년 비다쓰(敏達)가 구다라 오오이 (百濟大井, 가하치에 있는 지명)에 궁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0>} 「구다라」는 한자로 백제(百濟)라고 쓴다. 일본서기는 다시 기록한다 (NII: 169-170): “천황(舒明)은 칙령을 공포하여 말했다: —‘금년에 큰 궁전과 사찰을 짓도록 해라.’ 그리하여 구다라 강변이 (百濟川側) 궁전 터로 선정되었다. . . [서기 639년]이 달에 9층 탑이 구다라 강변에 건립되었다.” 일본서기는 또, 조메이(舒明)천황이 “[서기 641년에] 구다라 궁(百濟宮)으로 옮겼다. . . 천황은 그 구다라 궁에서 서거했다. 그는 궁전 북쪽에 임시로 매장되었다. 이것을 구다라의 ‘임시 대빈(大殯)’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20>}

일본서기 (NII: 171-173)는, 고오고쿠(皇極, 재위 642 - 년)가 즉위하자, 소가(蘇我臣, 蝦夷)가 그 전처럼 오오미(大臣)에 임명되었는데, 그의 아들 이루카(入鹿)가 “정권을 손아귀에 쥐어 그 세력이 아버지보다 강했으며,” 또 “소가 오오미(蘇我大臣)는 [서기 642년] 교기(翺岐, 백제의 왕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장)와 수행원들을 우네비에 있는 자기 집에 초대해, 그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 (NII: 174-176)는 또, “교기가 자기의 아이가 죽자, 처자들과 구다라 오오이에 있는 집으로 옮겼으며,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아이를 이시카와(石川)에 묻게 했다. . . 백제 사절단은. . . 궁정의 향연에 초대를 받았으며. . . 건장한 사나이들이 명에 따라 교기 앞에서 씨름을 해 보였다. . . 연회가 끝나자 그들은 물러나 교기를 대문까지 배웅했다”고 기록하고 있

다. 일본서기 (NII: 179)는 또 기록한다: 서기 643년에 “쓰쿠시(筑紫) 대재(大宰)는 [고오교쿠에게] 기마의 전령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다: — ‘고기의 동생이자 백제왕의 아들인 왕자가, 조공 사절과 함께 도착 하였습니다.’”²¹⁾

야마토 조정에는, 백제 왕족중 누구인가가 항상 사신 으로서가 아니면 장기 방문객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서기 650년, 아나토에서 잡은 흰 꿩이 고오토쿠(孝德)에게 진상 되었을때 일을 일본서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 . [흰꿩이 나타난 의미에 대해서] 백제 왕족들(諸百濟君)이 질문을 받고 말했다: — ‘후한(後漢)의 명제(明帝) 때, 어떤 장소에 흰 꿩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오토쿠는 흰 꿩이 나타난 것을 길조로 생각하고, 그것을 대신들과 관리들에게 보여 주었다. 일본서기 (NII: 238)는 그 광경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이히무시와 그밖의 세 사람이 짚으로 만든 꿩의 집을 들고 먼저 걸어가고, 좌우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뒤를 따르며, 백제군 풍장(百濟君 豊璋), 그의 동생 새성, [풍장의 삼촌] 충승. . . 등이 중정(中庭)으로 나아갔다.”⁶⁾

일본서기 (NII: 258)는 서기 658년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여황(濟明)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전했다: — ‘대당(大唐)과 신라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 (NII: 266)는 이어, 서기 660년 백제의 수도가 나당(羅唐) 연합군에 함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춘추지(春秋智)는 [당의] 대장군 소정방(蘇定方)의 도움으로 백제를 협격하여 멸망시켰다.” 그리고 일본서기 (NI: 268-269)는, 백제 사람들이 다시 집결하여 [州柔]에 새 왕국을 세웠다고 기록한다: “백제의 좌평(佐平) 귀실복신(鬼室福信)은, 좌평 귀지(貴智)와 그밖의 사람들을. . . 여왕 [사이메이]에게 보내어. . . 원군의 파병을 요청하고. . . 또. . . 백제가. . . [야마토] 조정에 파견한. . . 왕자 여풍장(余豊璋)을. . . 백제의 통치자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 .”²³⁾ 그러자 사이

⁶⁾일본서기는, 서기 64년에 “백제의 태자 여풍(餘豊璋)이 미와산(三輪山)에 벌통 4개를 설치하고 꿀벌들을 풀어 놓았으나, 그 벌들이 잘 번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메이는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옛적에도 군대의 파견과
원조의 요청이 있었던 경우를 알고 있다.
위급할 때 도와 주고, 중단된 것을 복구시켜 주는 것은
정의의 통상적 원칙의 발현이다.
극도의 위기에 처한 백제가 우리에게 와서
그 운명을 우리손에 맡겼다. . . .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결의는 흔들릴 수 없다.
우리는 장군들에게 별도의 명령을 내려,
백여개의 통로로 동시에 진격하게 하고. . .
해당 관리들에게는 그들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도록 할 것이다.”²⁴⁾

서양 학자들은 고대사에 관해서 일본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들도 극도의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배튼(1986)이 제기한 것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순수한 한국 국내 분쟁은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일본 영토와는 직접적으로 아무관계도 없는 [백제와 나당 간의] 전쟁에, 일본인이 왜 그렇게 정력적으로 개입해야 했을까 하는 것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서기가 제공하는 설명 [다시 말해서, 사이메이의 성명]은. . . 그럴듯 하기는 들리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⁷⁾

일본서기(NII: 252-255)에 의하면, 사이메이(재위 655-661년)의 손자 다케루(建) 왕자가, 서기 658년 나이 여덟에 죽었으며, 유해

⁷⁾배튼(1986)은 지적한다: “야마토 조정의 반응은 놀랍도록 적극적 이었다. . . 사이메이(齊明)는 원정 해군을 지휘하여 나니와(難波) 항을 떠났다. . . 나카 왕자는. . . 나노즈에서 해외전쟁의 조직을 관장했다. . . 왕자는 5명의 장군을 파견하여 백제를 원조케 했다. 무기와 곡식도 보내졌다. . . 풍(豊)왕자는 5,000명이 넘는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갔다. . . 6명의 장군이 2만7,5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격파하기 위해 추가로 파견되었다.”

는 그를 위해 이마키(今城) 골짜기 꼭대기에 축조한 무덤에 묻혔다. 이마키 골짜기는, 유우라쿠(雄略) 때 백제에서 건너 온 이마키 아야(今來漢)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었다. 사이메이는 슬픔에 넋을 잃고, 아래와 같은 시를 읊었다:

이마키(伊磨紀)의
오무례(平武例) 언덕에 오르면⁸
구름이 피어나지 않을 때에는
들판이 바라보이네,
내가 왜 슬퍼해야 할까?
어린 풀잎처럼
그 아이가 그렇게도 어릴 줄을
나는 미처 몰랐네. . .
아스카(阿須箇) 강의
흘러가는 강물이
흐르면서 부풀어 오르듯
그 아이가 보고 싶구나!. . .
내 설혹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널지라도
어이 잊으리
이 즐거운 이마키의 땅을. . .

일본서기(NII: 255)는 “사이메이가, 하타노 오오쿠라노 미야코(秦大藏造) 마리(萬里)를 불러, ‘이 시를 대대로 전해지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잊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기록했다.⁽²⁵⁾ 하타(秦)는 그 선조가 호무다(響田別)치세 때 건너 온, 백제 이민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씨족이다. 이것은 바로 백제와 야마토 왜(大和倭)의 황족과의 사이가, 지극히 친근한 관계라는 것을 시사

⁸애스턴(NII: 253n)은, “토착의 한 평자는, 무례가 한국말로 산을 뜻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오무례는 작은 언덕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마키(伊磨紀)에는 한국인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는 또 하나의 감정이 흐르는 기록이다.

일본서기(NII: 279-280)는, 야마토 통치자가 파견한, 만 명이 넘는 굳건한 장정들로 구성된 일본군이, 서기 663년 8월 백촌강(白村江) 하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당(唐)의 전함 170척에 의해 전멸되었으며, 그 직후 주유(州柔)도 당군에 함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⁹ 일본서기(NII: 280)는, 백제의 주유성이 당군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마토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러자 나라 사람들은 서로들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주유가 함락됐구나.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오늘로서 백제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제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어찌 다시 찾아 볼수 있을 것인가!’(丘墓之所豈能復往).”¹⁰ <26>

이 절에서 소개한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의 기록은,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서 이미 밝혀진 백제와 야마토왜 지배자들 사이의 혈연 관계를 재확인해 주고 있다.

베스트(1990: 441)는 흥원탁(1988)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흥(洪)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처럼, 호무다(響田別)가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의 축복을 받아 일본을

⁹배튼은, “중국 사료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일본 선박 약 400척이 침몰했다”고 말한다. 속일본기(스넬렌 역주: 238)는, “백제를 돕기 위해” 원정군이 파견되었을 때에 “당 나라 군대에 포로가 되었던” 니시고리베노 도라와 그밖의 두 사람의 귀국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40년 동안 노예로 일했었는데” 서기 707년에 석방되어, (신라에 파견되었던) 사신 아와타를 따라 일본에 돌아왔다고 한다. 그들의 불운을 동정하여 “옷과 소금과 곡식”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적혀 있다.

¹⁰어쩐 이유 에서인지 애스턴은 그냥 “나라 사람들(國人)”이라고 할 것을, 그 앞에 「그」를 넣어서 “「그」나라 사람들은 서로들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 . (國人相謂之曰).”라고 번역했다. 다른 대목(NI: 328)에서는, 같은 경우에, 애스턴은 국인(國人)을 단순히 “나라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다)”로 번역하고 있다(國人謗之).

침공한 백제의, 어쩌면 왕족 혈통의, 군사 지도자 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창건한 일본 조정의, 백제 조정에 대한 상대적 위상은, 동등한 관계 이상이 될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호무다가 백제의 후손 이었다면, 통상적인 유교적 관계 구도상, 그의 조정은 종속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흥이 방대한 자료의 인용을 통해서 밝히고 있듯이, 일본서기는 5세기에서 7세기 중엽 사이에 백제의 왕자가, 심지어는 왕세자가 질(質)로서 일본 궁정에 장기간 거주 했다고 여러군데에서 기록하고 있다. 흥(洪)이 인용한 이들 기록은 백제의 정치적 위상이, 일본 조정에 대해서 지배적 이었다든가, 심지어 동등 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흥은 이런 기사들을 일본서기 편찬자들의 국수주의적 조작이라고 처리해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것들을 다만 백제와 일본 통치자들의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123-125 페이지 참조). 친족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상대적인 지위에 상하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을 뿐이다. . .”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듯이, 일본서기와 고사기(古事記)는, 자신들의 근원이 신성(神聖)하다는 황족의 주장과, 진무(神武)시대 이래 그 황족의 통치가 끊어지지 않고 내려왔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다. 그러므로 편찬자들은, 야마토 왜(大和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자문”, “상담”, “조정”, “감독”의 임무를 수행했었을 백제의 왕자들과 관리들에 대해 “질(質)”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일본서기(NI: 346)는, 아마도 부지 불식간에 한일이겠지만, 백제의 개로왕(蓋鹵王)이 “형왕(兄王)의 우애를 공고히 하기 위해 (以脩兄王之好)” 곤지(昆支)를 왜(倭)에 보냈다고 기록한 백제신찬(百濟新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⑧

쯔다(津田左右吉, 1966: 51)도, 일본서기와 고사기가 어쩌서 역사를 그와 같이 짜마추었는지를 이해한 것 같다: “백제, 신라, 가라(加羅)에 대해 기록을 할때, 그들은 중화 사상과 유교사상을 흉내

내서, 야마토 왜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필법을 쓰고 있다.”¹⁾ ㄷ
다는 “이것들이 모두 편찬자들의 사상이지, 현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²⁾ (제5장 제4부도 참조.)